

“괴로움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것이 수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마타선원 가족법회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

불교가 현대사회 가정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2일 부산 마타선원에서는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가족법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불교가 현대사회 저출산, 가족해체 위기극복을 위한 보편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불교적 생명·가족·사회 사찰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일미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불교적 가족’이라는 담론의 원천을 찾기 위해 부처님의 고난의 삶과, 가족적인 삶,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적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부처님은 가족적인 삶 살아

현대사회에는 이혼, 가정폭력, 저출산 등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을 주제로 가정문제를 비롯한 삶의 괴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불교와 가족’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단연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생들의 죄를 자신이 모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좌선하고 계시는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처님은 아무런 고통·번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은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나 그런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알고 난 후, 29세에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코자 아버지, 아내, 아들 그리고 백성을 떠나 6년 간 고행에 올랐습니다. 35세에 깨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건 편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예수님을 너무 전지전능한 분으로 신격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최근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런 사실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가족적인 삶을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가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이 많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본 가족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 나후라, 사촌 아난다와 아누타, 이복동생 난다, 처남 데바닷타, 이모 마하파자바티, 아내 야소다라 등 일가친족들이 모두 부처님의 수행공동체 안에 끌어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수행자들을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거느리며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철없는 어린 아들을 비롯해 사촌들 간의 시샘과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꼼꼼히 점검하며 극복해 가셨습니다. 가족은 수행에 있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상당히 가족적인 분이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은 부처님

부처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 나후라를 비롯해 아내 야소다라,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이모 마하파자바티 등 자신보다 먼저 가족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미국 듀크대 한국불교학 교수 일미 스님이 7월 22일 부산 마타선원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찰가족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족적인 삶과 고난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제공=부산 마타선원

부처님 생애는 고난·역경 연속

중생들의 삶과 다를 바 없어

가족적 삶 추구 해 공동체 형성

가족을 수행의 동반자로 여겨

세상을 떠났을 때 인간은 슬픔, 절망, 괴로움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처남인 데바닷타는 항상 부처님을 견제하며 시기와 질투, 심지어 배반과 살해위협까지 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그다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인도는 코살라왕국과 마가다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살라국 파세나디왕은 부처님을 존경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얻곤 했습니다. 당시 왕은 아들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첫째부인이 천민 출신인데다, 딸을 낳아 근심이 더욱 큰 상황이었습 니다.

결국 왕은 부처님에게 부탁해 같은 왕족 출신인 사키야족의 비사바카티야를 아내로 맞이하고 비두다바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비두다바가 외가인 가

비라위성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진짜 왕족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사키야족은 그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진짜 왕족 대신 왕과 허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사바카티야를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 출신 때문에 크게 모욕 당한 비두다바는 이후 부왕을 멀리하고 부처님 일가친족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만나려 성을 비운 사이 왕자는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부처님의 일가친족도 몰살당하게 됐습 니다. 파세나디 왕 역시 조카인 마가다왕국의 왕 아자타사트루의 도움을 얻기 위해 라자그리하로 갔는데, 성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탈진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이 반란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했고, 그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당시 가장 곤란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또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두 왕국의 사이는 이 계기로 더욱 악화됐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승단까지 위협에 빠지게 됐습 니다. 계속되는 사람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부처님은 지질 법도 했지만, 끝까지 대중들에게 설법하시며 승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

데바닷타의 배신, 가족 죽음에도

고통 피하지 않고 대중 설법 지속

괴로움 속에서 해결책 찾으려 노력

나와 괴로움 관계 재설정 해

였습니다.

부처님은 결국 누군가 아난다를 죽이기 위해 독을 넣어 만든 음식을 대신 드시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형제로 이뤄진 것은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고통 속에서도 너를 등불삼아 내가 가르친 방법대로 정진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하시고 중도(中道)의 길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체개고 실천해야

우리 삶의 고통은 80% 이상이 가족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만큼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남편, 자녀,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 등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때문에 종교를 통해 더욱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노

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예수님의 삶은 바로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 모두 이상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어떤 고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을 무마하려고 술, 도박 등을 합니다. 이런 도피를 통해 괴로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고(苦)는 부처님과 중생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아내, 자식문제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 순간을 그대로 느끼고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축적되면 괴로움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역시 일체개고(一切皆苦)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고(苦)와 함께 했지만 고(苦)에 의해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삶이 ‘불교적 가족’이라는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신개념 크리스탈받침 PC컵 밑받침

一人一燭 연꽃밑받침양초

삼환양초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받침대 밑받침조 교체편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울림 수 있도록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받침조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받침조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밑받침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광 요랑이 양초 연봉 원기종 7.0 x 34cm 아광 용 양초 연봉 원기종 7.0 x 34cm 목각초 7.0 x 34

연화 대 9.5 x 11cm, 연화 중 9 x 10cm, 연화 소 7 x 6.5cm 밑받침양초 소 7 x 6.5cm

와까바 추리지야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옥향, 옥향 우리향, 백단향, 설중매, 인삼향, 대발향, 속향

• 도자기 인동 • 인동용 파리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흰타 주황

New

꽃과 나비

원기둥나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